

병원 떠나는 전공의... '의료 대란' 시작됐다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 전공의 70% 사직서 제출
예약 환자 수술 연기·취소...단계별 비상대책 의료공백 해소 의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376명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료 대란이 현실화됐다.

〈관련기사 6면〉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의 70% 가량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의 7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수련병원에 수술이 예약된 환자들은 수술 일정 연기를 통보받았고, 20일부터는 진료 환자 수가 상당폭 감소될 전망이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319명의 전공의 가운데 22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조선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142명 가운데 108명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또 광주기독병원은 39명 가운데 31명이, 전남대에서 과전된 순천 성가톨릭병원의 전공의들은 13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과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라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7시부터 병원 근무를 하지않겠다는 뜻을 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결정에 벌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 등 지역 민들의 분통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병원은 전공의들의 무단결근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 중이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남대병원은 전문의 440명과 PA 간호사를 투입할 계획을 수립했고, 조선대병원도 전문의 174명과 PA 간호사를 투입해 전공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전남대병원은 이미 19일부터 응급실 환자와 중환자실 환자, 입원환자, 고위험 산모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반 예약 수술 환자는 수술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 일반 환자로 진료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조선대병원도 당장 20일부터 의료 인력을 감안해 수술과 환자 진료 규모를 점차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병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는 퇴원 조치하는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

정부와 병원들이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했지만, 당장 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 '빅5'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

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을 비롯한 전국적인 사안인 탓에 당장 20일 오전부터 전국 어디에서도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 탓에 3차 병원인 전남대·조선대병원 외에도 수도권 '빅5'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 이래저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날 확산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정부는 대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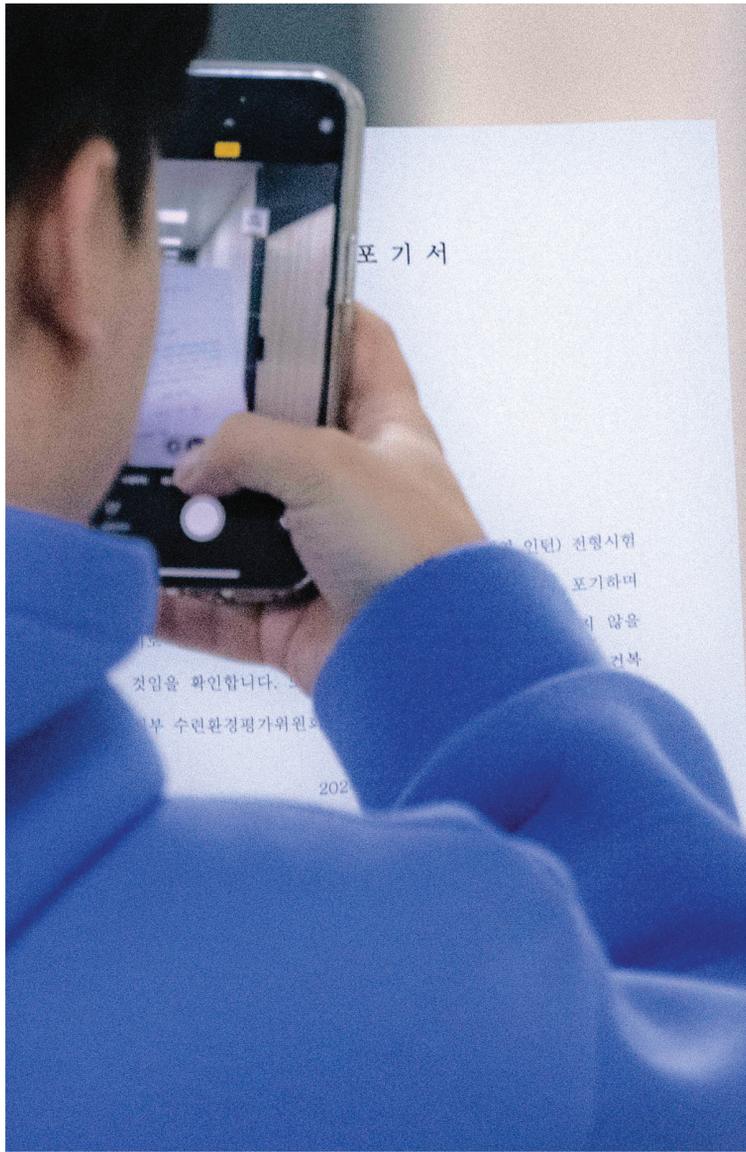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9일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교육수련실 앞에서 한 전공의가 수련포기서 제출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련포기서를 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00억짜리 총장로 살리기 사업 대폭 수정 ▶7면

굿모닝 예향 - 남도유람 '나주' ▶18·19면

KIA 캔버라 캠프 - 할 말 하는 젊은 투수들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코스피 2680선 돌파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19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고조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 거래일보다 31.50포인트(1.19%) 오른 2680.26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2022년 5월 31일(2685.90)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코스피는 지난 16일 1.34%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 대비 4.36포인트(0.16%) 올라 2653.12에 개장해 점점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2원 하락한 1335.2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93억원, 443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6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재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오는 26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일정이 확정된 후 저PBR(주가순자산비율)이 주도하는 상승세가 재개됐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이 현물과 선물을 대거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소득 장애인들에

우체국 암보험 무료 가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암보험(어깨동무보험 2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19~34세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315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체국 암보험에 무상 가입할 수 있고, 가입 1년 후부터 암 진단금을 최대 1000만원(소액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년이며,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전액 지원한다.

가입 신청은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달 14일까지 우체국 공익재단에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광주

가입절차 NO! 보험료 NO!

광주시민안전보험

여기치 않은 재난·사고, 광주시가 지켜드립니다. 광주시민이면 이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용

- ▶ 보장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 보장기간: 2024.2.21.(00:00) ~ 2025.2.20.(24:00) 매년갱신
- ▶ 보험료: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 ▶ 보장항목: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아래 참고)
※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해외발생 사고도 보장

보험금청구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보험사에 문의 1577-5939)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내·아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보험가입 혜택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한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 치료비: 1,000만원 한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만65세 이상)

